

- 주요 뉴스: 미국 3월 무역 및 주택부문 경제지표, 성장 둔화 가능성을 시사
 -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품연료 가격 상승은 '24년까지 지속 예상
 - 독일 5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사상 최저 수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반영
 - 중국 3월 공업부문 기업이익, 5개월래 최고치. 향후에는 하방 압력 증가할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최근 변동성이 과도했다는 인식과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이 영향

주가 상승[+0.2%], 달러화 강세[+0.7%], 금리 상승[+1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양호한 Microsoft 실적과 저가매수 유입 등이 배경
 유로 Stoxx600지수는 유로화 약세로 인한 수출 증가 기대 등으로 0.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과 여타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로 5년여 만에 최고치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8%, 0.9%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5월 큰 폭의 금리인상 전망 등이 원인
 독일은 경기둔화에 따른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 기대로 1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266.5원, +1.3원) 0.1% 상승, 한국 CDS 보합

		4/27일	4/26일	전일대비			4/27일	4/2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84.0	4,175.2	0.21%	국채 금리 10y	미국	2.83%	2.72%	11bp
	유럽	444.31	441.10	0.73%		독일	0.80%	0.82%	-1bp
	중국	2,958.3	2,886.4	2.49%	CDS 5y	한국	39bp	39bp	0bp
	일본	26,387	26,700	-1.17%		중국	80bp	81bp	-1bp
	한국	2,639.1	2,668.3	-1.10%	위험 지표	EMBI+	-	408	-
환율	달러지수	102.99	102.30	0.67%		VIX	31.60	33.52	-5.73%
	유로화	1.0557	1.0638	-0.76%		WTI유	102.02	101.70	0.31%
	엔화	128.43	127.23	-0.93%	원자재	구리	445.7	444.1	0.35%
	위안화	6.5606	6.5566	-0.06%		금	1,886.1	1,905.5	-1.02%
	원화	1,265.2	1,250.8	-1.1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3월 무역 및 주택부문 경제지표, 성장 둔화 가능성을 시사

- 미국 3월 상품 무역수지는 1253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 상무부에 따르면, 이는 재고 부족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기업들의 상품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
- 3월 잠정주택판매는 전월비 1.2% 줄어 2월(-4.0%) 대비 감소폭은 둔화되었으나 전반적인 감소세는 지속. 잠정주택판매는 5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모기지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
- 이와 같은 경제지표들은 모두 1/4분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 특히 주택부문은 여전히 국가 경제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수요 감소로 영향력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이번 경제지표 발표 이후 골드만삭스(1.5%→1.3%)와 JP모건(1.1%→0.7%)은 1/4분기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특히 IHS 마킷의 경우 기존 전망치를 낮추면서(0.7%→-0.6%) 역성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
- 다만 일부에서는 최근 소매매출, 기업재고 등이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는 등 수요 부문 지표들이 양호하기에,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과도할 수 있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품연료 가격 상승은 '24년까지 지속 예상

- 해당 사태 등으로 금년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연간 상승률은 50%에 이르고, '23년 및 '24년에는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반면 전쟁이 길어지면 이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은 더욱 증폭될 우려

■ 유럽위원회, 코로나 팬데믹 관련 긴급 상황 종료할 가능성

- 관계자들에 따르면, EU가 최근 확진자의 입원 및 봉쇄 등이 감소하고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독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예상
- 다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집단 감염 확률이 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경계감을 느슨하게 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

■ 독일 재무장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시 경기침체에 진입

- 하벨 장관은 금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3.6%→2.2%)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 금년 물가상승률은 6.1%에 이를 것으로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 성장률 전망의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고 부연

■ 독일 5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사상 최저 수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반영

- 해당 지수는 -26.5를 기록하여 전월(-15.7) 및 예상치(-16.0) 하회.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소비자들은 실질 구매력의 악화에 직면.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독일 경제의 위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증가

■ 중국 3월 공업부문 기업이익, 5개월래 최고치. 향후에는 하방 압력 증가할 가능성

- 3월 해당 이익은 전년동월비 12.2% 증가. 이는 당국의 세제혜택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 기업의 실적 호조 등이 배경. 하지만 CITIC의 Ma Hanping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및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향후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평가

■ 인민은행,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

-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발표. 아울러 특정 부문의 기업을 위해 대출자금을 제공하는 재대출 프로그램에 1000억위안을 공급할 계획

■ 호주 1/4분기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큰 폭 상승. 금리인상 가능성 증가

- 통계국에 따르면, 1/4분기 전년동기비 상승률은 5.1%로 21년 만에 최고치. 이는 에너지 및 식품가격의 큰 폭 상승 등에 기인. 시장에서는 5월 혹은 6월 금리인상(0.15%→0.25%)에 나설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4/2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도매재고(전월비): 2.3%, 2월(2.6%), 예상치(2.3%)

■ 주요 경제 이벤트(4/28 현지시각 기준)

- ECB 데 쿼도스 부총재 강연,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 미국 1/4분기 성장률 및 PCE 물가, 4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달러화 강세, 연준 통화정책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 - Financial Times

(The dollar ascendant)

-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과 비교하여 연준이 공격적인 통화긴축을 추진하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속. 과거 연준은 달러화 강세를 인플레이션 완화 요인으로 인식했는데, 이는 달러화 강세가 향후 통화긴축 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
- 반면 신흥국에는 달러화 강세가 수입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민간 및 정부의 달러화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또한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정책금리를 인상해야만 하는 역설적 상황을 유도

■ 미국 기업의 코로나 19 이후 고용행태 변화, 경기침체 방지에 긍정적 - 블룸버그

(Pandemic Economy Is Writing a New Labor Market Playbook)

- '01년과 '08년 경기불황 직후 회복기에 다수의 기업은 취약한 수요를 이유로 직원 유지에 소극적.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노동력 부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에, 이번에는 직원 해고 최소화 등으로 인력 관리에 나설 가능성
- 기업이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직원 고용을 유지한다면, 경기침체 발생 확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발생. 아울러 기업이 늘어나는 수요에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경기 회복기에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

■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공급충격 등의 원인이 보다 복잡해진다는 의미 - WSJ

(Russian Gas Cutoff Symbolizes New Era of Supply Shocks and Inflation)

■ 중국 위안화 약세, 국내소비 감소 등으로 성장을 제고는 기대난 - Financial Times

(Will the renminbi depreciation actually boost Chinese growth?)

■ 영국 경제, 고물가저성장세금인상 등을 고려한 신중한 통화정책이 요구 - 블룸버그

(Britain Faces a Trilemma of High Inflation, Slowing Growth and Rising Taxe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